

동아 유학 해석학의 시야에서 본 이노우에 카이(井上揆)의 『교보소씨비맹자(校補蘇氏批孟子)』

예진파(양주대학), 서지민(양주대학)

[초 록]

《소평맹자(蘇評孟子)》가 명대 중기에 세상에 나온 후, 이를 따르는 이들이 매우 많았다. 명청 양대에 수 부의 "속비본(續批本)", "증보본(增補本)" 또는 "집평본(集評本)"이 있었고, 심지어 메이지 시기의 일본에도 이러한 저작이 있었는데, 그 중 영향이 비교적 큰 것은 이노우에 구이 찬평본 《증보소씨비맹자(增補蘇氏批孟子)》이다. 이 책은 《교보소씨비맹자》라고도 불리며, 청인 조대환(趙大浣)의 증보본 《소평맹자》를 기초로 하여 일본의 비토 지슈(尾藤二洲), 라이 산요(賴山陽), 시오타니 토인(鹽谷宕陰) 등 저명한 학자들의 《맹자》 평점을 집록한 것으로, 명실상부한 "중일합평본(中日合評本)" 《맹자》이다.

이 책은 《소평맹자》와 조서(趙書)의 비어가 "뒤로 갈수록 적어지는" 결함을 주목하여, 《맹자·진심(盡心)》 상·하 두 편에 40여 조의 미비(眉批)를 추가하여 원서의 평점을 더욱 균형있게 만들었다. 평점 내용에 관해서는, 그 보충한 비어가 세 가지 측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古)를 존중하여 《맹자》 문장의 고아한 아름다움을 발굴하고; 사(史)로써 평에 들어가 문사호증의 평점의식을 드러내며; 《맹》을 근원으로 하여 《맹자》의 문학적 소급 가치를 부각시킨다. 상술한 비어는 대부분 라이 산요에서 나온 것으로, 이노우에가 후자와 그 관념을 상당히 추승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후지사와 난가쿠(藤澤南岳) 교소본 《증보소씨비맹자》는 비록 역시 조서를 기초로 하지만, 그 목적은 《맹》문의 가치를 천명하는 데 있지 않고 교문정자(校文定字), 해구석의(解句釋意)에 착의한 것이다.

동아시아 유학 해석학의 각도에서 볼 때, 《맹자》 평점을 포함한 《사서》 평점이 중국과 일본에서의 유포와 수용은 아마도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을을 보여주는데 - 문장과 문학 전범으로서의 유가 해석학이다.

[주제어] 이노우에 구이; 《교보소씨비맹자》; 《맹자》 평점; 동아시아 유학 해석학

명대 정덕년간에 소순(蘇洵)으로 탁명한 평점 저작 《소평맹자(蘇評孟子)》가 출현했다. 이후로 《사서》 평점이 하나의 새로운 경학 해석 방법으로 점차 흥성하게 되었다. 필자가 현재 통계한 바에 따르면, 명·청 양대의 《사서》 평본은 각각 9종, 31종이 있으며, 모두 《맹자》 평본이 가장 많아서 각각 8종, 17종이다. 이러한 《맹자》 평본 중에는 수 부의 《소평맹자》 "속비본(續批本)", "증보본(增補本)" 또는 "집평본(集評本)"이 있는데, 가령 명대 진심(陳深)의 《소노천비점맹자해고(蘇老泉批點孟子解詁)》, 대균은(戴君恩)의 《회맹(繪孟)》, 그리고 청대 장진도(張甄陶)의 《맹자익주론문(孟子翼注論文)》, 조대환(趙大浣)의 《증보소비맹자(增補蘇批孟子)》, 심보정(沈保靖)의 《독맹집설(讀孟集說)》 등이다.

이뿐만 아니라 《소평맹자》 및 그 속편, 증보본들이 일본에까지 전해져 일본 학자들에 의해 더욱 소증증보되었다. 메이지 13년(1880), 후지사(후지사와 난가쿠(藤澤南岳) 교소본과 이노우에 구이(井上揆) 찬평본 《증보소비맹자》가 동시에 출간되었는데, 후자는 《교보소씨비맹자(校補蘇氏批孟子)》라고도 불린다. 이 책은 청인 조대환의 증보본 《소평맹자》를 기초로 하여, 일본인 비토 지슈(尾藤二洲, 1747-1813), 라이 산요(賴山陽, 1780-1839), 시오타니 토인(鹽谷宕陰, 1809-1867) 등 저명한 학자들의 《맹자》 평점을 집록한 것으로, 명실상부한 "중일합평본(中日合評本)" 《맹자》이며, 청대 《맹자》 평점의 동아시아 전파, 나아가 동아시아 《사서》 해석사를 논의하는 데 전범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노우에 구이의 《교보소씨비맹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여 방가대아(方家大雅)의 가르침을 구하고자 한다.

1. 이노우에 구이 및 그의 《교보소씨비맹자》

이노우에 구이는 자를 이경(一卿), 호를 앵당(櫻塘)이라 하며, 일본 메이지시대 유학자로 아오모리(靑森) 사족 출신이며, 생몰년은 상세하지 않다. 이노우에 구이는 당시에 한적(漢籍)의 표주찬평으로 알려졌다. 일찍이 차례로 《한문장등합평(韓文長藤合評)》(메이지 11년 1878 매암당 각본), 《당송팔대가문독본찬평(唐宋八大家文讀本纂評)》(메이지 12년 1879 오타 간우에몬 각본), 《교보소씨비맹자》(메이지 13년 1880 오하시 조키치 간본), 《사서훈점(四書訓點)》(메이지 15년 1882 도쿄 마루젠서점 각본), 《표주문장귀범독본(標注文章軌範讀本)》(메이지 30년 1897 미즈노 게이지로 각본), 《표주십팔사략독본(標注十八史略讀本)》(메이지 31년 1898 미즈노씨 게이지로 각본) 등의 책을 출간했다.

이노우에 구이의 훈점과 찬평 저술을 보면, 그는 비교적 유가 경전과 당송 고문에 관심을 가졌다. 그의 《사서훈점서(四書訓點序)》에서 말하기를: "글씨를 배울 때 해서는 어렵고 초서는 쉬우니, 학자가 먼저 그 어려운 것부터 들어가면 쉬운 것은 따라서 손에 익혀 할 수 있다. 독서의 법도 또한 그러하다. ... 아동의 훈독에서 《사서》《오경》보다 어려운 것은 없다. 만약 《사서》《오경》을 훈독하여 익숙해지면, 《좌전》《국어》《사기》《한서》를 읽을 때 스승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또한 해서 서법을 배울 때는 엄정해야 하고, 《사서》《오경》을 읽는 법은 더욱 엄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선유들이 《사서》《오경》을 교정하여 훈점을 붙인 것이다. ... 서법에서 말하기를: '엄정한 법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유분방한 법을 얻을 수 없다.' 나도 훈독의 법에 대해 그렇게 말한다."고 하였다.

이노우에 씨는 서법 연습을 비유로 들어, 한문 경전 《사서》《오경》을 읽는 것은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방법은 반드시 엄정해야 하며, 엄정한 법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훈점, 즉 한문 옆에 주해진 가나와 구두점의 도움을 빌려 정확한 독음과 구독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이로써 이노우에 씨가 한문 유가 경전의 학습에 대해 나름의 심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훈점은 어음을 표주하고 구독을 점시하는 것으로 초학자를 위해 설정된 것이고, 찬평은 제가의 평론을 집록하고 문법을 드러내며 내용을 해석하는 것으로 진계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교보소씨비맹

자》는 바로 그의 찬평 저술 중 하나이다.

《교보소씨비맹자》의 현재 볼 수 있는 가장 이른 간본은 메이지 13년(1880) 오하시 조키치 각본으로, 상·중·하 3책으로 나뉘어 있다. 상책 표지 서첩에는 "이노우에 구이 찬평 《증보소비맹자》"라고 제목이 적혀 있고, 서명페이지에는 "교보소씨비맹자"라고 서명되어 있어, 본문에서는 청인 조대환의 《증보소비맹자》와 구별하기 위해 후자로 칭한다. 서명페이지 제목 아래에는 "일본 평자 성씨: 라이 산요, 비토 지슈, 시오타니 토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상에는 "앵당 이노우에 구이 찬평"이라고 제목되어 있다. 각 책의 첫 페이지 제목 아래에는 "미산 소순 노천 원본, 고강 조대환 금강 증보, 일본 이노우에 구이 일경 찬평"이라고 서명되어 있다.

상책 권수에는 주득지, 조대환 두 서문이 열거되어 있지만 서명을 쓰지 않고 단지 판심에 각각 "주서" "조서"라고 새겨져 있다. 실제로 주서는 명대 가정 원년(1522)에 쓰여진 것으로 《소노천비점맹자인(蘇老泉批點孟子引)》이라 칭하고, 조서는 청대 가정 17년(1812)에 쓰여진 것으로 《증보소비맹자·자서》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이노우에 구이의 《교보소씨비맹자》는 명대 《소평맹자》를 원본으로 하고, 청인 조대환의 《증보소비맹자》를 저본으로 하여, 소비, 조비 및 비토 지슈, 라이 산요, 시오타니 토인 3인의 평을 집록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함풍연간에 심보정이 《증보소비맹자》 일서에 자신의 설을 부가하여 《독맹집설(讀孟集說)》을 만들었는데, 이 책은 소비, 조비, 자비를 일체로 모은 《맹자》의 집평본이다. 다만 이노우에 구이의 《교보소씨비맹자》는 《증보소비맹자》의 증보본이자 《맹자》의 집평본일 뿐만 아니라 《맹자》의 중일합평본으로서 텍스트의 성질이 특히 두드러진다.

2. 《교보소씨비맹자》 신찬 제평의 불평형성

《교보소씨비맹자》 제목 아래 자기(自記)에 따르면, 이 책은 소비, 조비, 비토비, 라이비, 시오타니비 5인의 평을 찬집한 것이다. 재록 체례를 보면, 그 중 소비, 비토비, 라이비, 시오타니비는 모두 "某云"으로 이끌어지는데, 조비만은 그렇지 않다. 이는 이노우에 구이의 이 책이 조씨의 《증보소비맹자》를 저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증보

비주의 형식을 보면, 절대 대부분이 미비(眉批)와 협주(夾注)이고, 미주(尾注)는 드물다. 책 중에 새로 찬한 3명의 일본 학자의 비어 수량을 보면, 심각한 불평형성을 나타낸다.

그 중 라이 산요의 비어가 가장 많아서, 그의 미비만도 240조이고, 협비는 더 많으며, 미비 3조도 있다. 시오타니 토인의 비어가 가장 적어서 겨우 3조만 보이는데, 모두 미비이다. 비토 지슈의 비어는 총 11조로, 미비 10조와 미비 1조를 포함하며, 《고자상(告子上)》 "어아소욕(魚我所欲)" 장에 집중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비토가 이 장에 대한 비어는 주로 문법과 관련된다. 먼저 미비로 절을 나누어 구조장법을 분석한 다음, 미비로 총평하여 말하기를:

제1절: 비유로 일으키니, 이는 객이다.

제2절: 이는 정의이다.

제3절: 위 절의 연유를 추명한다.

제4절: 위 절을 이어 반대로 말하니, 반드시 범정을 설하는 것은 아니다.

제5절: 제3절에 응한다.

제6절: "고(故)" 두 글자는 위를 맺고 아래를 일으키는 것이고; "인개유지(人皆有之)" 구는 중히 보아야 하며; 편수부터 "능물상이(能勿喪耳)"까지는 정론으로, 이것이 대단이다.

제7절: 이하는 반론으로, 하나는 정이고 하나는 반이니, 문장이 변성하되 살(殺)하지 않는다.

제8절: 위 절을 이어 반복하여, 결단하여 "실기본심(失其本心)"이라 하니, 바로 이단의 "현자물상(賢者勿喪)"과 상응한다.

글자마다 법이 있고, 절마다 순서가 있어, 가장 명창하고 알기 쉬우니, 초학자가 문장을 하고자 한다면, 의리를 버리고 그 자법 구법을 세밀히 관찰해야 하며, 자구가 이미 명확해지면 그 나머지 의리는 반 이상 생각이 통할 것이다.

이로써 이노우에 씨의 《교보소씨비맹자》는 실제로 소비, 조비, 라이비를 중심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비, 라이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라이 산요가 스스로 《맹자평

점》을 저술했으며 그가 "이문시경(以文視經)"의 관념을 견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노우에 구이의 《교보소씨비맹자》에는 자서가 없지만, 책 말미에 라이 산요의 두 단락을 미비로 수록하여 말하기를:

라이云: 세상의 유자들이 《맹자》를 경으로 보지, 문으로 보지 않으니, 그 문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얻는다는 것은 어려울진저. 나는 《맹자》의 문을 좋아하여 밤낮으로 읽는데, 우연히 마음에 맞는 것이 있으면 비를 하고 권을 치며 평론을 가하여 쌓아서 한 책을 만들었으니, 감히 고경을 농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써 그 뜻을 얻고자 함이다.

라이云: 고어는 모두 평이하고 명백하여 대개 주석이 필요 없다. 주석한다는 것은 명물도수일 뿐이다. 대체로 주가들은 가슴에 성견이 있어 고어를 끌어다가 따르게 하니, 후인들이 정문을 읽지 않고 먼저 주를 읽어서 곳곳이 눈에 거슬린다. 하물며 갑은 옳고 을은 그르다 하니, 내가 누구를 따르겠는가. 모든 주를 다 버리는 것은 가시덤불을 태워 좋은 나무를 드러내는 것과 같아서, 자의가 드러나고 맥휘가 유통하여 고인의 마음이 약연히 나타나니, 이것이 나의 치경법이다. 나대경이 말한 바 "의진의 이빨집으로써 주공의 심흥을 밝히니, 탁식명변으로 만세를 소성시킨다"는 것이 확실한 평이다. 나는 일찍이 백본 한 권을 놓고 매일 아침 낭송하며 수시로 점평을 가했는데, 지금 이를某생에게 준다. 혹자가 말하기를: "문으로써 경을 본다는 것은 설만하다"라고 하면, 답하기를: "경이 문이 아닌가, 문을 버리고 경을 말한다면, 경이 반드시 주에 의존해야 하고 경이 비로소 간삽완비한 물건이 된다. 나는 경을 존송하는 것이지, 경을 설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라이 산요는 이름이 양(襄), 자가 자성(子成), 호가 산요(山陽), 별호가 "삼십육봉외사(三十六峰外史)"이며, 통칭은 큐타로(久太郎)이다. 오사카에서 태어나 히로시마에서 자랐으며, 후에 교토에 정착했다. 젊을 때 에도에 유학하여 비토 지슈를 스승으로 섬겼다. 라이 씨는 에도 후기의 문사통재로 여겨지며, 《일본외사(日本外史)》《일본정기(日本政記)》《일본악부(日本樂府)》《산요시초(山陽詩鈔)》《산요유고시(山陽遺稿詩)》를 저술했다. 또한 라이 씨는 중국 고문과 시가 선본을 여러 종 편저하고 평점했는데, 《소문규칙(小文規則)》《고문전형(古文典刑)》《맹자평점(孟子評點)》《사선습유(謝選拾

遺)》《이충정공집초(李忠定公集鈔)》《한소시초(韓蘇詩鈔)》《증평당송팔가문독본(增評唐宋八家文讀本)》 등이 있다. 이노우에 구이가 위에서 인용한 평어는 그의 《서맹자평점후(書孟子評點後)》에서 나온 것이다.

라이 씨는 《맹자》를 좋아하여 전문 평본 외에도, 그의 고문선평본 《고문전형》에서 《맹자》 "어아소욕(魚我所欲)" "팽갱문(彭更問)" "제인유일처일첩(齊人有一妻一妾)" 세 장을 선택하여 평점을 달았다. 주목할 점은 《맹자평점》《고문전형》 두 책에서 라이 씨가 모두 "이문시경(以文視經)"의 관념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고문전형범례(古文典刑凡例)》 제4칙에서 말하기를:

지금의 소위 문이라는 것은 기(記)가 아니면 서(序)이므로, 그 선문이 전문적으로 한유, 유종원 이후를 취하고 때로 고대에 미친다. 지금 단연히 독단적으로 주진 양한 만을 취하는 것은 여러 선본이 팔가에 대해서는 대개 주비하므로 반드시 군더더기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팔가의 문을 사람들이 문으로 보지만, 주진의 문을 사람들이 경으로 보고 사(史), 자(子)로 볼 뿐이다. 내가 이 선본을 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문으로 보게 하여 그 법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한유, 유종원이 체를 정한 후 후인들이 따랐는데, 따르기만 하고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므로 그 강해 같은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비유하면 서예를 배우는 것과 같아서, 미불을 배우 되 저수량을 배우지 않으면 끝내 미불이 되지 못하고, 소식을 배우되 안진경을 배우 지 않으면 끝내 소식이 되지 못한다.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유, 유종원의 용필의 근본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 고첩이 모사할수록 더욱 차이가 나서 오직 형체만 남지만, 고문은 《전형》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광채정신을 아울러 갖고 있어 털끝만큼도 결손이 없으니, 어찌 머리를 숙이고 임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이 산요는 경이 곧 문이고, 경서가 곧 한유, 유종원의 문과 같다고 여겼다. 선진 양한 이전의 문장을 전인들이 혹은 경으로, 혹은 사로, 혹은 자로 보았지만 실제로는 모두 문으로 볼 수 있으며, 문으로써 경을 삼는다는 것은 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을 존숭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고문전형》은 전문적으로 한대 및 그 이전의 경전을 선택했는데, 《단궁(檀弓)》《고공기(考工記)》《맹자》《순자》《장자》《열자》《한비자》《손자》《위료자》《좌전》《공양전》《국어》《전국책》《사기》를 포함하여, 이러한 전통 관념 중의 경, 사, 자서를 라이 씨는 일괄적으로 문으로 보았다. 이

관념을 조금 인신하면 실제로는 "사부즉문(四部卽文)"이다. 평점은 하나의 문학비평 수단이므로 라이 씨는 이를 빌려 상술한 여러 책의 문학성을 발굴했다.

중국에는 예로부터 "문경이도(文經二途)" "문본어경(文本於經)"의 관념이 있었으므로 사고관신들이 격렬하게 이문해경에 반대했다. 후에 청인 원매(1716-1797)가 "육경개문(六經皆文)"의 이념을 제출하고, 완원(1764-1849), 왕분(1828-1899) 등이 이어받아 경학의 해방과 경학관념의 이론적 전환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이념은 라이 씨의 "사부즉문" 관념과 비교하면 여전히 다소 보수적이다. 또한 상술한 《범례》에서 라이 산요는 또한 주진양한의 문이 한유, 유종원 문의 근원이라는 관념을 드러냈다. 소위 "한유, 유종원이 체를 정한 후 후인들이 따랐는데, 따르기만 하고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므로 그 강해 같은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한유, 유종원의 근원을 주진양 한까지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이며, 이 점도 그의 《맹자》 평점에 영향을 미쳤다.

이노우에 씨의 《교보소씨비맹자》는 자서를 쓰지 않았고 책 중에도 자평을 붙이지 않아서 심보정의 《독맹집설》과 다르다. 그러나 그는 라이 산요의 《서맹자평점후》를 자신의 책 말미에 이식했으며, 특의로 미비로 삼아 어떤 의미에서는 이를 자신의 책의 발어로 본 것이다. 이는 이노우에 구이가 라이 산요의 관련 비어와 관념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3. 《교보소씨비맹자》의 교보지별과 집평특색

이 책의 제목이 "교보"라 하니, 글자 그대로 하나는 "교(校)"이고 둘은 "보(補)"이다. 그러나 전자는 실제로 매우 적어서 전서에 8곳뿐이며, 모두 간단한 텍스트 차이 설명이다. 비교적 특별한 것은 모든 교감 문자가 소프레임 형식으로 미비란 위, 판틀 밖에 가해져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양혜왕하》 "제인장축설(齊人將築薛)" 장의 "후세자손필유왕자(後世子孫必有王者)" 구에서 이노우에 구이가 교감하여 말하기를: "서목재본에는 '왕자' 아래에 '의(矣)' 자가 있다." 통행본 주희 《맹자집주》(이하 "주본"이라 약칭)에는 이곳에 "의" 자가 있지만, 함풍 6년(1856) 쌍문저문선루 각본 조대환 《증보소비맹자》(이하 "함풍본"이라 약칭)에는 이곳에 "의" 자가 보이지 않는다. 문의와 주본

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이곳은 "의"가 있는 것이 좋으니, 서목재본이 무오하고 이노우에 구이가 근거한 《증보소비맹자》본은 이 글자가 실제로 결여된 것이다.

또한 《공손추하》 "맹자지평륙(孟子之平陸)" 장의 "차비거심지소득위언(此非距心之所得為言)" 구에서 이노우에 구이가 교감하여 말하기를: "서목재본에는 '위언'이 '위야(為也)' 자로 되어 있다." 주본은 "위야"로, 함풍본은 "위언"으로 되어 있다. 문익와 본 장 후문 "차즉거심지죄야(此則距心之罪也)"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위야"가 좋으니, 서목재본이 무오하고 그가 근거한 저본이 실제로 틀린 것이다.

또한 《이루하》 "군자소이이어인자(君子所以異於人者)" 장의 "약부군자소환즉망의(若夫君子所患則亡矣)" 구에서 교감하여 말하기를: "일본(一本)에는 '망(亡)'으로 되어 있다." 통행본은 모두 "망의"로 되어 있으니, 그가 근거한 저본이 틀리지 않고 소위 "일본"이 틀린 것이다.

또한 《고자상》 "식색성야(食色性也)" 장의 "백마지백야(白馬之白也)" 구에서 교감하여 말하기를: "제본에는 '백마' 위에 '이어(異於)' 두 글자가 있다." 주본에는 "이어" 두 글자가 있고, 함풍본에는 없다. 상하 문의에 근거하면, 이곳의 "백마" 두 글자는 빠뜨릴 수 없으니, 통행 제본이 틀리지 않고 그가 근거한 저본이 틀린 것이다.

이상으로 이노우에 구이가 지적한 《증보소비맹자》의 착오궤성이 모두 함풍본에서 보이는 것으로, 그가 근거한 저본이 바로 함풍본 또는 그 번각본임을 보여준다. 이것이 첫째이다. 둘째, 이노우에 구이가 저본 원문의 갖가지 궤오를 지적한 것은 《사서》제본을 비교대조한 기초 위에 건립된 것으로, 그가 명확한 판본 교감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당세에 유행한 《사서》 판본에도 비교적 숙련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그 중에서 그가 누차 언급한 소위 "서목재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본인지는 아직 구증이 필요하다. 주목할 점은 이노우에 구이가 라이 산요의 《맹자평점》도 교감했다는 것이다. 《고자상》 "맹계자문공도자(孟季子問公都子)" 장의 "경숙부즉경, 경제즉경(敬叔父則敬, 敬弟則敬)" 구에서 이노우에가 먼저 라이 씨의 방비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라이云: '매이이자발상기하(每以二字拔上起下).'" 또 판틀 위에서 교감하여 말하기를: "라이 《평》의 '발(拔)' 자는 아마 '반(扳)' 자의 착오일 것이다." 아쉬운 것은 앞서 서술한 모든 대감과 마찬가지로 이노우에 구이가 모두 어떤 결론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에 비해 이노우에 서의 "보"는 극히 많으며, 주로 미비와 방비에 집중되어 있고,

미비는 기본적으로 조씨 《증보소비맹자》를 습용했다. 《소평맹자》와 조서의 평점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뒤로 갈수록 적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맹자》 마지막의 《진심》 상·하 두 편을 《사서집주》에서 총 74장으로 분석했지만, 함평본에서 보이는 미비는 총 16조뿐이고, 이것도 소비와 조서 두 것을 합한 것이다. 이노우에 구이는 이 두 장에 47조의 미비를 증가시켰으며, 모두 라이 산요의 평으로, 전서 증보 미비의 거의 20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로써 이노우에 구이가 의도적으로 조서의 비주가 적은 곳을 보충하여 그 평점을 더욱 균형있게 만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노우에 구이의 전서에 대한 증평은 조서의 원유 특징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특색을 보여주었다.

첫째, 고(古)를 존중하여 《맹자》 문장의 고아한 아름다움을 발굴한다. 《양혜왕하》 "제인장축설(齊人將築薛)" 장에서 제나라가 등나라에 인접한 설지에 성을 쌓아 등나라를 위협하자, 등문공이 이 때문에 공황에 빠졌다. 맹자는 주 태왕이 펄박을 받아 죽인들을 이끌고 기산으로 이주했으나 주인들이 최종적으로 강대해져 일어난 역사를 인용하여 등문공에게 선정만 행하면 공황할 필요가 없으며 "후세자손필유왕자(後世子孫必有王者)" 구절을 말했다. 이노우에 구이가 라이의 평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고어를 인용한 후 그 어구 중의 글자를 배열하여 논을 발하니, 이는 고문의 다자한 곳이다." 여기서 《맹자》가 고사 등을 빌려 특별한 미학적 풍모를 조성했음을 드러냈다.

《등문공상》 "등문공문위국(滕文公問為國)" 장에서 맹자가 말하기를: "하후씨는 오십에 공하고, 은인은 칠십에 조하며, 주인은 백무에 철하니, 그 실체는 모두 십일이다. 철자는 철야요, 조자는 차야이다." 맹자가 드물게 어휘를 해석했는데, 고제가 아득하여 당세 사람들이 이미 많이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세밀하게 설명한 것이다. 이 때문에 주희가 주하여 말하기를: "이 때문에 비록 예법이 폐괴된 후라도 제도절문을 다시 고찰할 수 없지만, 대략으로써 상세함에 이르고 옛것을 미루어 새것을 만들 수 있었으니, 이미 지나간 자취에 구애되지 않으면서도 선왕의 뜻에 합할 수 있었으니, 참으로 명세아성의 재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노우에 구이가 연이어 라이 산요의 평 두 조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주소어가 문에 들어갔으나 도리어 고아하다"; "두 곳이 모두 주소를 사용하니 고아하고 갱쟁하다."

주자는 의리의 각도에서 맹자가 상고 예법제도에 능숙하면서도 진부한 것을 밀어내

고 새것을 내어 시대와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찬미했다. 라이 산요는 언어의 각도에서 《맹자》의 문장이 경문 주소와 유사한 방식으로 서사하여 고아한 풍이 있음을 찬양했다.

또한 《등문공하》 "맹자위대불승(孟子謂戴不勝)" 장에서 라이 산요도 연속적인 감탄이 있어 말하기를:

행문조사가 고아수발하니, 완미할수록 묘하며, 전적으로 대대중복처에서 자세를 생하는 데 있으니, 이는 고문의 가한 곳이다.

어어가 고아하고, 편법장법, 구법자법이 모두 갖춰져 있다.

앞서 인용한 《서맹자평점후》 일문에서 라이 산요가 《맹자》를 "고경"이라 칭했고, 그가 또 일찍이 전문적으로 주진양한 고문을 선택하여 교학 범본으로 삼았으므로, 그가 고아지기를 숭상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예로부터의 《맹자》 평점 중에서는 많이 그 문을 "기" "신" "묘"라고 칭했는데, 이노우에 구이가 찬평한 일본 제가의 평점에서는 이를 칭하는 것이 드물어서, 이노우에 씨도 《맹자》의 문을 고아하다고 찬미한 것이다. 다만 라이 산요가 《서맹자평점후》에서 또 "고어는 모두 평이명백하여 대개 주석이 필요 없다", "후인들이 정문을 읽지 않고 먼저 주를 읽어 곳곳이 눈에 거슬린다", "모든 주를 다 제거한다" 운운했다면, 그가 경문 주소와 유사한 어를 고아지기의 증명으로 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둘째, 사(史)로써 평에 들어가 문사호증의 평점의식을 드러낸다. 라이 산요는 당세의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사상가로서 중일 고사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선명한 사학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그의 《맹자》 평점에 스며들었고, 이노우에 구이도 특별히 라이 씨의 이러한 평어를 인증하는 데 주의했다. 앞서 인용한 《양혜왕하》 "제인장축설" 장의 "구위선후세자손필유왕자의(苟為善後世子孫必有王者矣)" 일구에서 라이 씨가 방비하기를: "삼국지사, 근사명험"이라고 했다.

또한 《이루하》 제4장 "무죄이살사즉대부가이거(無罪而殺士則大夫可以去)" 구에서 주희가 주하여 말하기를: "군자가 마땅히 기미를 보고 행동해야 함을 말하니, 화가 이미 박두하면 떠날 수 없다"고 했다. 이 주는 부족한 듯하다. 이 장은 "군지시신여수족(君之視臣如手足)" 장 아래에, "군인막불인(君仁莫不仁)" 장 위에 있으므로 또한 군신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군주가 만약 불인하여 무고한 이를 남살한다면 대신이 그를

군주로 받들지 않고 출주로써 항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라이 씨가 방비하여 말하기를: "동한 당인, 당 백마, 명 동림이 모두 이 의를 밝히지 못했다." 이 논문은 암중에 이상의 사인들이 소위 군신대의에 어두워 일미하게 우충하다가 신사에 이르렀으며, 맹자가 일찍이 신자가 완전히 혼악한 군주를 존송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음을 모른다고 비판한 것이다. 방법론의 각도에서 보면, 이는 타시타지의 역사와 《맹자》의 내용을 호증하여 《맹자》 문장의 깊은 역사적 계시와 거감 가치를 드러낸 것이다.

사사 외에도 라이 산요는 더 많이 역사인물을 평어로 삼아 직접 그 명호를 《맹자》 문구 옆에 표기하여 독자가 스스로 참고하게 했다. 《이루하》 "순생어제풍(舜生於諸馮)" 장에서 맹자가 말하기를: "순이 제풍에서 태어나 부하로 이주하고 명조에서 죽었으니, 동이지인이다. 문왕이 기주에서 태어나 필영에서 죽었으니, 서이지인이다." 라이 씨가 "동이지인야", "서이지인야" 두 구 옆에 각각 비하기를: "아골타가 구실로 삼을 수 있다", "철목진이 구실로 삼을 수 있다."

출생과 사망 장소로 보면 순제는 동이지인이고 문왕은 서이지인이지만, 모두 "득지 행호중국"한 성인이다. 라이 씨는 완안아골타와 철목진이 "중국"의 동서에 거주하는 이족으로서 두 성인을 빌려 "중국"을 기도했음을 지적했다. 이 평은 화이지변의 의미가 있는 듯하지만, 라이 씨가 《맹자》를 평점하는 새로운 법이다.

이 편의 "맹자고제선왕(孟子告齊宣王)" 장에서 "군지시신여수족(君之視臣如手足)", "군지시신여견마(君之視臣如犬馬)", "군지시신여토개(君之視臣如土芥)" 세 구에 라이 산요가 각각 방비하기를: "운대이십팔장, 능연이십사인", "한애평, 당숙대", "진시, 수양"이라고 했다. 라이 씨가 익숙한 역사인물로 직접 《맹자》의 문을 비주했으니, 설령 어떤 해석도 부가하지 않더라도 중국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축적이 있는 독자라면 그 뜻을 영오할 수 있고, 《맹자》의 문도 연장된 역사공간에서 지시의의와 성사가치를 얻는다. 이는 전형적인 문사호증법으로 학술저작과 경전주소에서 흔히 보이지만, 이 책에서 라이 산요가 이를 《사서》 평점에 이식한 것은 창거라 할 만하다.

셋째, 《맹》을 근원으로 하여 《맹자》의 문학적 소급가치를 부각시킨다. 소, 조 두서와 마찬가지로 이노우에 서도 《맹자》의 문을 극도로 추송했다. 《양혜왕상》 "제환진 문지사(齊桓晉文之事)" 장에서 이노우에 씨가 라이 산요의 비어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라이운: 맹자의 경세대문으로, 이는 외왕을 위한 것이고 "호연" 장은 내성이니, 용약 진탕하여 단락을 나눌 수 없다.

라이운: 파란이 왕양하고 간가가 굉활하며, 억양개합의 법이 여기에 다했다.

두 구의 단평은 《맹자》에 함축된 경세사상을 포양할 뿐만 아니라 그 문법을 극진히 찬미했다. 라이평 외에도 이노우에 서는 시오타니 토인의 평도 인용했다. 《이루상》 말장 시작에서 말하기를: "천하대열이장귀기, 시천하열이귀기유초개야, 유순위연(天下大悅而將歸己, 視天下悅而歸己猶草芥也, 惟舜為然)." 시오타니가 비하기를: "《장자·거협편》 기수와 이것이 동일한 법으로, 천고의 돌기법문을 열었다." 그 편의 시작에서 말하기를: "거협탐낭발궤지도이위수비, 즉필섭함등, 고정설, 차세속지소위지야(為祛篋探囊發匱之盜而為守備, 則必攝緘縈, 固局鑰, 此世俗之所謂知也)." 두 문의 개편이 모두 벽공이래하여 사람을 놀라게 하고 또 감탄하게 하니, 후세 돌기문법의 조상이다. 이런 추본소원의 평점의식은 다른 《맹자》 평본에서도 때로 보이지만, 이노우에 구이의 《교보소씨비맹자》에서 더욱 집중되어 있다.

"제한진문지사" 장의 "이왕개위시재(而王豈為是哉)" 일구에서 《소평맹자》 방비에서 말하기를: "돈. '위' 자가 일축이다." 이어서 "연즉왕지소대욕가지이(然則王之所大欲可知已)" 일구에서 《소평맹자》 방비에서 말하기를: "긴전. 토기골락지세가 있다." 이노우에 서에서 다시 라이 산요의 미비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대돈좌처를 보니, 신빙 가생 《치안제일책》의 남본이다." 전절돈좌, 문세종횡은 《맹자》 문장의 돌출한 특징이다. 여기서 라이 산요가 이를 가의 《치안책》과 연결시켜, 그것이 가문의 홀준홀완한 풍격을 계발했다고 여겼다.

이 장의 "금왕발정시인(今王發政施仁)" 일단에서 또 라이 산요의 미비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천전만절이래하니, 소위 만리비류주재일학자가 말폭에 있다. 후세 주의에서 먼저 의론하고 후에 구화하는 것이 이에 근본한다." 《맹자》 이 편에서 먼저 제선왕이 왕도를 행할 수 있음을 논한 다음 구체적인 인정방안을 제시했으니, 후세의 주의처럼 먼저 형세배경을 분석하고 다시 조작방법을 세밀히 진술한 것과 같다. 라이 산요는 《맹자》의 문이 후대 주의류의 공문을 계발했을 뿐만 아니라 《손자병법》과 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여겼다. 《공손추하》 "천시불여지리(天時不如地利)" 장에서 이노우

에 씨가 라이 산요의 비어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손자》 십삼편의 주의도 또한 이와 같다." 이는 행군작전도 또한 천시지리인화를 강조하여 《맹》문과 성기가 상통함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이루상》 "이루지명(離婁之明)" 장에서 이노우에 씨가 라이비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자가의 논과 인증의 어가 서로 끼어 착이위장하니, 수일종용하여 《서경》의 조이다." 《서경부》는 한대 장형의 《이경부》 중 하나인데, 이 비는 그 인증자증이 결합된 문법이 《맹자》 이 장과 유사하다고 여긴 것이다.

라이비가 제시한 《맹자》 문장의 영향사 시야에서 한유, 유종원, 소식이 누차 언급된다. 예를 들어 《이루하》 "제인유일처일첩(齊人有一妻一妾)" 장에서 이노우에가 라이씨의 미비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소품문자는 마땅히 이것을 법으로 삼아야 한다"; 또 그 방비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절묘한 소품으로, 유주(柳州)가 많이 이것을 남본으로 삼았다." 또한 《만장상》 "요이천하여순(堯以天下與舜)" 장에서 "천(天)" 자가 극히 많은데, 라이비에서 말하기를: "하나의 '천' 자를 잡고 단단히 씻어내니, 그 어가 실제로 한유, 유종원의 근원이다." 또한 《고자하》 "임인유문옥려자왈(任人有問屋廬子曰)" 장에서 라이비에서 말하기를: "구문이 침봉상대하여 꽤절하나, 하어가 발사비야하므로 정채가 배가 있으니, 후래 삼소가 이 뜻을 얻었다."

그러나 라이비에서 가장 많이 논의한 것은 여전히 한유의 문장과 《맹자》 문장의 관계이다. 《공손추하》 "맹자거제숙어주(孟子去齊宿於晝)" 장의 말구에서 말하기를: "자위장자려이불급자사, 자절장자호, 장자절자호(子為長者慮而不及子思, 子絕長者乎, 長者絕子乎)?" 이노우에 서의 미비에서: "라이云: 맹자가 '호' 자를 잘 사용하니, 한퇴지가 독득히 이 법을 얻었다." 또한 《등문공하》 "공도자왈(公都子曰)" 장에서 이노우에 서가 라이비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삼성인의 발란처를 열서한 후 자기 신상의 사업에 들어오니, 문세가 일개합하여 창려 《원도》가 자못 이 양자를 배웠다." 또한 《고자상》 "생지위성(生之謂性)" 장에서 맹자가 연속 세 번 묻고 층층 추진하는데, 이노우에 서가 라이비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묻기를 극도로 하여 저로 하여금 답할 수 없게 하니, 어기가 진봉하여 후래 창려가 잘 배웠다."

또한 《등문공하》 "팽갱문(彭更問)" 장에서 이노우에 구이가 라이 산요의 미비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한퇴지 《삼상재상서》의 남본이다." 소위 《삼상재상서》는 《상재상

서》《후십구일복상재상서》《후이십구일복상재상서》이다. 당덕종 정원 9년부터 11년(793~795)까지 한유가 연속 3년간 이부의 박학공사와 시험에 참가했으나 모두 실패하여, 낙심한 나머지 또 의서가 난평하여 11년 정월 27일에 재상에게 서신을 올려 관직을 구했으나 서신이 보고되지 않았다. 후 19일(2월 16일)에 다시 제2서를 올렸으나 니우입해였고, 후 29일(3월 16일)에 또 제3서를 올렸으나 음신이 전혀 없었다. 세 서신이 정애사비하여 후인들에게 상당히 비웃음을 받았는데, 한유가 후안히 걸려서 자경자천한다고 여겼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이도 있었다. 임서가 말하기를:

나는 특히 창려의 서신을 아끼는데, 진의가 과히 높아서 조정, 가담, 노매 등배가 미칠 바가 아니므로 반드시 괴소하여 우리라 하고 버렸을 것이다. 대개 상인과 말할 때는 마땅히 이해로써 움직여야 하는데, 만약 고의로써 서로 책망한다면 진실로 시제가 미칠 바가 아니다.

소위 "진의과고"는 한유가 서신 중에서 표현한 성인지도를 흠모하고 천하를 근심하는 마음 등인데, 이러한 것들이 당시의 세 재상을 포함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현사혹인으로 신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한유가 중생과 다르게 유가 도통을 자임하여 그가 구한 것이 하나의 관직이 아니라 경세제민, 진쇠기폐 이상을 실현하는 기점이었음을 모른 것이다. 이를 두고 말하면 한유의 《삼상재상서》는 맹자가 이 장에서 보여준 도의 자임자 의식과 일맥상통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라이 산요가 이 편이 한유 세 서신의 남본이라고 말한 것이니, 통견이라 할 만하다.

앞서 인용한 《고문전형》에서 라이 산요는 《맹자》를 포함한 주진양한의 문을 한유, 유종원 문장의 근원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평점에서 호응하여 그 구체적 연원을 드러낼 것이다. 심지어 때로는 라이 산요가 《맹자》의 문이 자체로 한유가 미칠 수 없는 곳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만장하》 "백이목불시악색(伯夷目不視惡色)" 장에서 "공자지거제접석이행거로(孔子之去齊接淅而行去魯)" 이하에서 맹자가 연속으로 17개의 "야(也)" 자를 사용했는데, 후세에서 이 필법에 대해 많이 주목했다. 이노우에 구이가 연속 두 번 라이비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말에 연속으로 17개 '야' 자를 내리니, 단병함진과 같다"; "연속으로 17개 '야' 자를 내리니, 구법이 반드시 변하여 이양하게 할 필요가 없이 자연히 곡절하여 말에 홀연히 그친다. 한창려에게는 변화가 있으나 도리어 이런 것에는 미칠 수 없다."

총괄하면, 이노우에 구이가 라이 산요 등의 관련 평점을 대량 집록함으로써 전인의 기초 위에서 《맹자》의 문과 후세 문장, 특히 한유, 유종원 문 사이에 더욱 명확한 연결을 구축하고 《맹자》문의 더 많은 소급성 가치를 발굴했다.

4. 후지사와 난가쿠 교소본 《증보소비맹자》 및 그 특징

메이지년간에 조대환의 《증보소비맹자》를 보충, 교소한 일본 학자는 이노우에 구이 외에 후지사와 난가쿠도 있었는데, 그의 책은 메이지 13년(1880) 박원서원 간본이 있으며, 후지사와 난가쿠가 구가 긴지, 소코 신사부로를 연청하여 조서에 근거해 자행 번각한 것이다. 이 본의 서첩에는 "후지사와 난가쿠 교소 《증보소비맹자》"라고 제목되어 있고, 서명페이지에는 여전히 《증보소비맹자》라고 제목되어 있으며, "소순 노천씨 원본, 조대환 금강씨 증보, 후지사와 항 난가쿠씨 교소"라고 서명되어 있다.

후지사와 난가쿠(1842-1920)는 이름이 항(恒), 자가 군성(君成), 별호가 구구산인(九九山人) 등이며, 난가쿠는 다카마쓰 번주가 하사한 호이고, 사누키(지금의 가가와 현)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 토분(東畠, 1794-1864)이 석학으로 알려져 분세이 8년(1825) 오사카에 박원서원을 창립했는데, 종학자가 매우 많았다. 난가쿠는 아버지를 따라 오사카에서 성장한 후 박원서원을 집장하며 유학으로써 인심을 교화한다고 주장하여 일시에 명성이 진동했다. 이 서원은 에도 말기 오사카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한학 사숙이자 일본에서 지속시간이 가장 긴 유학서원 중 하나로, 1948년에 이르러야 폐쇄되었다. 난가쿠는 《논어휘찬》《만국통의》《원명사략편몽》《칠향재시초》《칠향재문준》《평석한비자전서》 등을 저술했으며, 또 그의 아버지와 합저한 《주역집소》가 있다.

박원서원간 후지사와 교소본 《증보소비맹자》는 총 4책으로, 차례로 원(元), 형(亨), 이(利), 정(貞)으로 구별한다. 그 중 원책 앞에는 후지사와의 《각소비맹자서》가 있어 말하기를:

진화가 꺼진 후 《육경》이 결여되었다. 후의 학도자들이 부득이 제자에게서 날개를

취해야 했는데, 제자 중에서 경의 날개가 될 수 있는 것은 《맹》《순》이 으뜸이다. 그런데 고문의 수려함이 광염환적하여 오늘에 범을 남긴 것은 세상에서 《맹》과 《장》을 추앙한다. 그렇다면 《맹》이라는 것은 화실을 겸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세인들이 모두 실로써 《맹》을 취하고 후의 주자들이 다시 그 화를 설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도는 문으로써 전해지는 것인데, 말하되 문이 없으면 그 행함이 멀지 못하니, 화를 어찌 폐할 수 있겠는가? 나는 평생 항상 한스럽게 여겨왔다. 작년 가을 하라다 세이추가 와서 이 본을 증여했는데, 열람해보니 소비 조평이 탐색발비하여 호분리석하니 다시 여운이 없어서, 내가 크게 기뻐하여 이에 교정상재한 것이다. ... 지금 액상보소하여 권을 시하여 구자와 구별하니, 모두 자구해이거나 선배평어인데, 또한 독자의 취사에 맡길 뿐이다.

후지사와는 이 서문에서 먼저 문과 도 관계에 대한 견해를 표달했다. 그는 문이전도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문도 편폐할 수 없다고 여겼다. 고문 중에서 오직 《맹자》만이 "화실을 겸비"하여 문도를 겸비하지만, 후세 주소자들이 오직 그 도만 중시하고 그 문을 무시하므로 매우 유감스럽게 여겼다. 이 점은 이노우에 구이, 라이 산요와 유사하지만, 그 관념이 후자만큼 격진하지는 않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후지사와는 중국에서 전파되어 온 조대환의 《증보소비맹자》를 극도로 흠상하여, 조서가 《맹》문에 대한 발굴이 이미 "다시 여운이 없다"고 여겨 보소간각한 것이다. 이노우에 구이본과 마찬가지로 후지사와본도 조서를 저본으로 하여 증평, 교소를 겸비했지만, 다른 점은 이 책이 대량의 자평을 증보했으며 모두 이로 이끌어 소비, 조평과 구격하게 했다는 점인데, 소위 "권을 시하여 구자와 구별한다"는 것이다. 평어 중에서 후지사와는 많은 중, 일 학자들의 평론을 인용했는데, 소위 "선배평어"이다.

필자의 통계에 따르면, 후지사와 난가쿠는 이 책에서 총 221칙의 자평을 증가시켰으며 모두 미비인데, 그 중 인용한 중국 학자와 저작으로는 《순자》, 환관 《염철론》, 조기 《맹자장구》, 나대경 《학림옥로》, 주희 《맹자집주》, 모기령 《사서잉언》, 강영 《군경보의》, 초순 《맹자정의》 등이 포함되고, 정인한 일본 학자로는 오카 하쿠구, 모리타 마스카즈, 라이 산요가 있는데, 특히 라이 씨가 많아서 총 31곳이며, 이노우에 구이와 마찬가지로 라이 씨를 상당히 중시했다. 또한 두 책이 인용한 라이 씨 《맹자평점》

문자에는 여러 곳이 중합된다.

예를 들어 《이루하》 "제인유일처일첩" 장에서 이노우에, 후지사와가 모두 라이비를 인용하기를: "절묘소품으로, 유주가 많이 이것을 남본으로 삼았다." 또 《진심하》 "진신서(盡信書)" 장에서 두 책이 모두 라이비를 인용하기를: "미리 모기령, 주이준 일배인이 천재 전에 있을 줄 알고 일필로 말살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라이 산요의 《맹자평점》이 당세에 상당히 학자들의 관심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노우에, 후지사와 두 사람의 《맹자》에 대한 인지가 상통하는 곳이 없지 않음을 암시한다.

후지사와 난가쿠는 서문에서 조서를 격찬하며, 그것이 《맹자》의 문에 대한 발굴이 "다시 여운이 없다"고 여겨 그가 보소한 것은 "모두 자구해"라고 했다. 그의 책을 살펴보면 말한 바가 허언이 아니다. 후지사와의 증평 중에서 《맹자》 문법과 관련된 평어는 매우 적다. 《고자상》 "어아소욕야(魚我所欲也)" 장에서 후지사와가 미비하여 말하기를: "이 편도 또한 고문의 일법인데, 사람들이 오직 간단함이 고다는 것만 알고 또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모른다." 이 비는 비록 문을 논한 것이지만 어언부상하여 소위 "이법"이 구체적으로 무슨 법인지 모르겠다. 후지사와의 증점은 교소이며, 우선 문자의 정오에 있다.

《만장상》 첫 장 첫 구에서 말하기를: "만장문왈: '순왕어전, 호읍어민천. 하위기호야(萬章問曰: '舜往於田, 號泣於旻天. 何為其號也)?'" 후지사와가 교소하여 말하기를: "상하문에 근거하면 '천' '하' 사이에 아마 '어부모(於父母)' 세 글자가 탈락했을 것이다." 소위 "상하문"은 실제로는 아래 문장 맹자의 응답을 가리키는 것이다: "장식문어공명고왈: '순왕어전즉오기득문명의. 호읍어민천어부모즉오부지야(長息問於公明高曰: '舜往於田則吾既得聞命矣. 號泣於旻天於父母則吾不知也).'" 공명고왈: '시비이소지야(公明高曰: '是非爾所知也).'" 이 구로 보면 후지사와가 이 장의 첫 구에 탈문이 존재한다고 의심하는 것은 일정한 도리가 있다.

또한 《고자상》 "식색성야(食色性也)" 장의 말구에서 말하기를: "부물즉역유연자야연즉기자역유외여(夫物則亦有然者也然則嗜炙亦有外與)?" 후지사와가 교소하여 말하기를: "'유외(有外)'는 아마 '재외(在外)'의 착오일 것이다." 후지사와가 이런 의혹을 가진 것은 앞 문장에 "어아(於我)" "어외(於外)"의 어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등문공하》 "외인개칭부자호변(外人皆稱夫子好辯)" 장에서 말하기를: "요순기

물성인지도쇠폭군대작괴궁실이위오지민무소안식기전이위원유사민부득의식사설폭
행우작원유오지패택다이금수지(堯舜既沒聖人之道衰暴君代作壞宮室以為汙池民無所安
息棄田以為園囿使民不得衣食邪說暴行又作園囿汙池沛澤多而禽獸至)." 후지사와의 미
비하여 말하기를: "사설폭행우작(邪說暴行又作)' 여섯 글자는 아마 연문일 것이다."
유월도 이 논을 지지했다. 그의 《다향실경설》 권16에서 말하기를:

우안: "사설폭행우작" 여섯 글자는 연문이다. "사설폭행" 네 글자가 위 문장에서 보
이지 않는데 이에 "우작"이라 하니 의가 통하지 않는 것이 첫째이고, "원유오지" 구가
"괴궁실이위오지" "기전이위원유"를 긴밀히 이어받아 말한 것인데 이 여섯 글자를 기
재하니 문의가 격절되는 것이 둘째이다. 의심하건대 이 여섯 글자는 마땅히 아래 문
장 "성왕불작제후방자처사횡의(聖王不作諸侯放恣處士橫議)"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다.
대개 "세쇠도미(世衰道微)" 절에서 이미 "사설폭행유작(邪說暴行有作)"이라 했으므로
여기서 "우작"이라 한 것이다. "우(又)" 자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 구가 마땅히 저곳에
있어야 함이 의심없다.

상하문으로 보면 이 6개 글자가 확실히 돌출되어 보이며, 유월의 변석이 매우 통견
을 갖추고 있다. 후지사와는 비록 그가 의심하는 원인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역시 전
후 문구의 논리관계에서 출발하여 추론한 것으로, 유월이 본 바와 일치한다.

문자를 교감하는 것 외에 후지사와는 그 전인의 주에 대해서도 변의가 있는데, 주희
《집주》도 포함된다. 《등문공상》 "등문공위세자(滕文公為世子)" 장에서 말하기를: "공
명의왈: '문왕아사야주공개기아재(公明儀曰: '文王我師也周公豈欺我哉!'" 조기 《주》에
서 말하기를:

문왕을 스승으로 삼고 주공을 믿는 것은 그 법칙으로 삼을 바를 안다는 말이다.

이는 문자에서 직해한 것이다. 주희 《집주》에서 말하기를:

"문왕아사야"는 대개 주공의 말이다. 공명의도 또한 문왕을 반드시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고 여겨 주공의 말을 외우며 그가 나를 속이지 않음을 탄식한 것이다.

주희가 단언하기를 "문왕아사야는 대개 주공의 말"이라 하면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아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문왕이 주공의 아버지인데 주공이 그 아버지를 "아사(我師)"라고 칭하는 것은 다소 이상하다. 후지사와가 평하여 말하기를:

"아사" "기아"는 호언으로, 믿을 수 있어서 스승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주 《주》가 틀렸다.

이 해석도 조 《주》와 같이 문본에 의거하여 해독한 것이지만 또 후자를 초월하여 "아사야" "개기아재"를 호문건의로 보아, 문왕, 주공이 모두 믿을 수 있어서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으로 보았다. 이 이해는 상하문 어경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통탈창달하여 확실히 독견이다.

총괄하면, 후지사와 난가쿠 교소본 《증보소비맹자》는 비록 《맹자》문의 가치를 긍정하지만 구체적인 교소 과정에서는 이에 착의하지 않고 교문정자, 해구석의를 주로 한다. 이노우에 구이 찬평본 《증보소비맹자》와 비교하면, 양자 모두 라이 산요의 《맹자평점》을 특별히 중시하지만, 다른 점은 이노우에본이 비록 제목에서 "찬평"이라 칭하지만 중, 일 학자의 평어를 징인하는 것이 실제로는 후지사와본만 못하고, 주로 라이 산요의 평을 빌려 자신의 견해를 표달하며 많이 문학적 발굴을 하는 반면, 후자는 많이 직서자해하여 문본을 교소한다는 것이다.

결론: 동아시아 유학 해석학의 새로운 유형으로서의 《사서》 평점

이노우에와 후지사와의 《증보소비맹자》가 출판된 2년 후, 근세 일본의 대유 다케조에 미쓰히로(竹添光鴻, 1842-1917)의 《맹자론문》이 정식 출간되었다. 이 집대성식의 일본 《맹자》 평본은 청인 왕우박(王又樸)의 《맹자독법》의 현저한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체례상 장진도의 《사서익주론문》과 매우 유사하다. 《맹자》 평점은 《사서》 평점과 경서 평점의 일부분으로, 그것이 메이지 일본에서의 전파, 수용, 속저는 《사서》

평점이 이미 중국의 역사시공을 초월하여 동아시아적 영향을 가진 일종의 유가 경전 해석 행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아시아 《사서》 해석학 시역하에서 《사서》 평점을 이해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

황준걸 선생이 일찍이 말했다: "동아시아 근세 사상사 발전 과정에서 유가 경전의 해석과 재해석은 사조의 형성과 전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며, 《사서》의 중요성은 더욱 무시할 수 없다." 그는 또 지적하기를, 중국 경전 해석학은 "인지활동"을 수단으로 하고 "실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해석 행위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첫째, 해경자 개인의 심로역정의 표술로서의 해석학, 즉 "융구이주신(融舊以鑄新)"의 사고모식으로 주경을 통해 성현 경계를 기모하는 심로역정을 표달하는 것으로, 주희 《사서집주》와 같은 것이다. 둘째, 정치학으로서의 유가 해석학, 즉 "반본이개신(返本以開新)"의 사고모식으로 주경을 통해 경세제민의 정치이상을 표달하는 것으로, 강유위 《맹자미》와 같은 것이다. 셋째, 호교학으로서의 유가 해석학, 즉 "격탁이양청(激濁以揚清)"의 사고모식으로 주경을 통해 유학을 변호하는 것으로, 대진 《맹자자의소증》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글 《동아시아 유학 경전 해석사의 사서학》에서도 보인다.

이에 준하면, 《맹자》 평점을 포함한 《사서》 평점은 모두 분류할 수 없는 것 같다. 바꿔 말하면, 평점은 아마도 동아시아 유학 해석학의 일종의 새로운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 문장과 문학 전범으로서의 유가 해석학.